

화신(和珅)과 건륭(乾隆)황제의 관계로 보는 청대의 부패양상

Corruption in the *Qing*(清) Dynasty as a Relationship between *Heshen*(和珅)
and Emperor *Qianlong*(乾隆)

이강범(Lee Kangbum)*·호미(Ho, mi)**

ABSTRACT

Heshen(和珅) is considered the most corrupt high official in Chinese history. He is a very unusual case, because his time was reign of peace, and the emperor was also an Emperor *Qianlong*(乾隆), considered a very distinguished monarch.

He dealt with the *LiShiyao*(李侍堯) case, his unfair harvesting has begun, and the transition from clean official to corrupt official was very quickly. As *Heshen's* rank rose, his wealth also increased by using seven methods. The emperor overlooked and protected *Heshen's* fraudulent harvest because he was more trusted by the emperor with the ability he wanted and by matching the emperor's mood in a timely manner. And the harm was severe because it took a lot of money to go on a very luxurious trip whenever Emperor *Qianlong* went down to *Jiangnan*(江南). So *Heshen* created a system for discussing crimes(議罪銀) and allowed Emperor *Qianlong* to use the income generated from it privately. However, when Emperor *Jiaqing*(嘉慶) immediately made him commit suicide after the death of Emperor *Qianlong*, the size of *Heshen's* property became a matter of keen interest. Depending on the data, it is estimated to be 200 to 800 million silver *liang*(銀兩), but the exact amount is beyond investigation. Emperor *Jiaqing* was able to gain political advantage by punishing *Heshen*. Nevertheless, *Heshen's* corruption case can be seen as a symbol of the decline of the *Qing*(清) Dynasty. He certainly seems to have rushed his own death because of his outstanding ability.

Key words: *Heshen*(和珅), Emperor *Qianlong*(乾隆), Corruption, *Jiangnan*(江南), system for discussing crimes(議罪銀), Emperor *Jiaqing*(嘉慶)

* 주저자: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명예교수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중국의 부패는 역사적으로 유구하며 그 양태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거대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과정에는 거의 빠짐없이 멸망한 왕조 지도층의 심각한 부패가 멸망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왕조의 교체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반복이 되는데, 동한 말기 삼국시대에 사대부와의 대립에서 승리하며 궁정 권력을 장악했던 내시 집단 십상시(十常侍)의 정치부패와 여진족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북송(北宋) 조정의 내부 부패로 적전 분열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환관이나 외적이 아니라도 정치부패로 인한 수탈을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 봉기하고, 혼란을 틈탄 군벌들의 혼전이 일어나 임계점을 넘으면 수도가 함락되고 왕조가 뒤집히는 과정이 반복된다. 어느 경우에도 그 시발점에는 부패가 자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볼 때 정치부패의 근본 원인은 인치(人治)라는 전통적 통치 시스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인치의 좋은 점은 좋은 황제를 만났을 때는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지만, 나쁜 황제를 만날 경우 부패가 만연하고 결국 천하 대란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쁜 황제란 반드시 폭군이나 혼군(昏君)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정치 능력 없이 무능하거나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성격의 황제 역시 나쁜 황제에 속한다. 남하하여 재기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끌다 이자성(李自成) 농민반란군이 궁내로 쳐들어오자 급하게 자결을 선택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승정제(崇禎帝)를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황제가 평범한데도 천하가 평안한 것은 좋은 신하, 혹은 통치시스템을 유지하며 본분을 지키고자하는 신하를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황제 제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방법이 없지만, 21세기 오늘날 중국의 부패 문제 또한 비대해진 경제 규모와 비례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든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국가별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2020년의 경우 중국은 42점을 기록해 180개국 중 78위를 기록하고 있다.¹⁾ Freedom House 등의 기구에서 발표하는 언론 혹은 자유 지수보다는 매우 높지만, 경제 규모나 세계적인 영향력 등으로 보았을 때 시급한 개선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발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현재로는 그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눈을 청대(清代)로 옮겨 중국 역사상 최악의 탐관(貪官)으로 꼽히는 화신(和

1)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대한민국 33위, 역대 최고 성적』에 인용된 “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2021. 01.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집계한 2022년 “언론 자유 지수(Press Freedom Index)”에서 중국은 180개국 중 175위에, 프리덤 하우스가 집계한 2020년 “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에서 중국은 10점으로 209개 국가와 지역 중 194위에 자리하고 있다.

坤)이라는 인물을 통해 전통사회에서 어떤 경로로 관료가 되고, 어떻게 황제의 신임을 받아 최고의 유능한 관리로 성장하였으며, 그의 부패 메커니즘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신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살았던 시기의 황제가 폭군이거나 무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통치자로서 중국 역사에 보기 드문 성세를 이룬 건륭(乾隆) 황제였으며, 화신 자신도 군주와 걸 맞는 능력 있는 신하로서 매우 특출한 정치적 행정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쇠락이나 무장 봉기를 틈타 부패나 부정축재를 한 무능한 탐관(貪官)들과는 매우 다른 경우로, 최전성기를 이끌던 건륭황제 시대에 이런 거대한 탐관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묘한 부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태평성대에 역사상 최악의 탐관(貪官)이 등장한 사례는 시대상황이나 제도, 국가의 안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패는 언제라도 생겨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예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황제와 그가 제일 신임하던 신하의 사사로운 관계만으로 거대한 부패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그렇다면 황제는 그의 어떠한 점을 높이 사서 부패가 가능하게 되었는지, 또는 시대의 불가피성이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시대환경이 그런 부패 구조를 용인했는지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출세과정과 축재과정은 전통사회의 입신양명 과정과 권력의 후원을 받는 능력 발휘와 출세, 다시 거기서 부패로 나가는 과정을 공식처럼 보여주고 있다. 또 그의 부정축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경계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작지 않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건륭제와 화신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에서 출발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²⁾

II. 화신의 빼어난 능력과 부정축재의 시작

1. 화신의 빼어난 능력

화신(1750-1799)은 청나라 중기 사람으로, 청이 가장 강성한 시기인 건륭황제(1736-1796년 재위)의 치세와 완전히 일치한다. 만주족의 가장 오래된 성씨이자 8대성(姓)의 하나인 뉴호록(鈕祜祿: 니우구루)씨이며, 만주족의 귀족인 팔기(八旗)중 정홍기(正紅旗) 출신이며, 본명은 선보(善保), 자(字)는 치재(致齋)이다. 건륭 15년(1750)에 복건(福建)에서 무관직인

2) 중국에서는 화신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고, 특히 건륭시기를 다루는 연속극이나 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라 대중들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화신이 제목이나 주제로 들어가 있는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였으며, 건륭제 혹은 그 시대를 주제로 한 논문 100편 가까이 검색되지만, 화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윤옥은 계속해서 만주사와 만주족 연구에 깊이 천착하고 있는데, 화신을 연구한 영문 자료로 2012년 『통보(通報)』에 게재된 WookYoon, 『Prosperity with the Help of “Villains,” 1776-1799: A Review of the Heshen Clique and Its Era』(『T'OUNG PAO(通報)』, 2012)가 있다.

부도통(副都統) 뉴호록·상보(鈕祜祿·常保)의 아들로 태어났다. 세 살 때 모친이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버지 역시 화신이 아홉 살 때 병으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집의 늙은 머슴과 부친의 첩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

화신은 만주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귀족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한 함안궁학(咸安宮學)에서 수학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는 정규 과목인 경사(經史) 이외에도 소수민족언어·서화·무공·기사(騎射)·화기(火器) 등을 두루 익힐 수 있었다. 청 조정은 특히 한족 말고도 몽골·티베트·위구르 등 주변 민족과의 소통을 매우 중시하여, 그들의 언어를 교육하는데 이전 왕조에 없는 힘을 쏟았으므로, 그 덕분에 화신은 그들의 언어로 외교문서 작성까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외국어 능력은 화신이 훗날 건륭제의 신임을 얻는데 크게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건륭 53-54년(1788-1789) 사이에 네팔 중부의 구르카 왕국이 티베트(西藏)를 침입하자 건륭제가 원군을 보내 평정하였는데, 평정 공신 15명의 인물화를 그리게 하고 그들을 치하하는 제사(題詞) 『구르카평정 15공신도찬(平定廓爾喀十五功臣圖贊)』을 썼다. 이 글에서 건륭제는 공신 중의 한 명인 화신의 외국어 능력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다.

화신은 만주문·한문·몽골문·티베트문의 주요한 뜻에 매우 달통하였다. 작년에 전쟁을 치를 때 모든 지시가 거의 합당하였으며, 매번 만주어와 한어를 겸하여 달라이라마와 구르카왕국에 칙서를 각각 전달하였으며, 몽골어와 티베트어도 겸하여 쓸 줄 알았다. 신료들 중 티베트어에 통달한 자를 찾기가 특히 어려운데, 오로지 화신만이 교지를 받들고 유지(諭旨)를 쓸 줄 알았으니, 일처리의 조리가 정연하여 사람들에게 일에 능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於清文、漢文、蒙古、西番(藏文)頗通大意。去歲用兵之際，所有指示機宜，每兼用清、漢文，此分頒給達賴喇嘛及傳諭廓爾喀敕書，並兼用蒙古、西番字。臣工中通曉西番字者殊難其人，唯和坤承旨書諭，俱能辦理秩如，見稱能事。)³⁾

하지만 화신이 처음 벼슬에 오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9살에 과거에 응시하여 낙방하였으나, 문과 학생의 신분으로 우리의 음서(蔭敍)에 해당하는 은음(恩蔭, 門蔭이라고도 함)의 혜택을 입어 겨우 3등 경거도위(輕車都衛)를 세습할 수 있었다. 건륭 38년(1773)에 23세가 된 화신은 황제 외출 경호와 오락을 책임지는 점간처(粘杆處)의 호위무사로 선발되었다.⁴⁾ 궁중에서 경비나 경호 업무를 맡는 낮은 벼슬이지만 건륭제를 지근거리에서 호위할 수 있는 직책이었으므로, 그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얼마 안 있어

3) 이 도찬은 건륭제가 거둔 외족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게 위해 1755년 준가르(准噶爾)를 평정한 후 공신 100명이 화상을, 1776년에 사천 서북지방의 금川 반란을 평정한 뒤 다시 100명의 화상을 그리게 하였는데, 이후로도 50쪽의 《平定台灣功臣像》과 30쪽의 《平定廓爾喀功臣像》등 모두 280명의 공신을 그리게 하고 그 일부에 제사(題詞)를 지어 붙였다. 지금은 거의 유실되고 20여 폭만 남아 있다.

4) 『清史稿·列傳106·和坤傳』: “乾隆三十四年，承襲三等輕車都尉。尋授三等侍衛，挑補黏杆處。四十年，直乾清門，擢御前侍衛，兼副都統。” 10752쪽. 中華書局, 1986, 北京.

황제의 눈에 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⁵⁾

이후 화신의 출세는 매우 순조로웠다. 2년 후인 1775년에 건청문(乾淸門) 시위(侍衛)가 된 이후 1779년까지 정람기(正藍旗)부도통·국사관(國史館)부총제·보군통령(步軍統領)·어전대신(御前大臣) 등 그야말로 벼락출세의 길을 달렸다. 이후로도 계속 노련하고 강력한 수단을 발휘하여 건륭제의 신임을 얻었다. 특히 화신이 마흔이 된 1789년, 건륭제는 자신의 열 번째 딸인 고윤화효(固倫和孝) 공주를 화신의 아들인 풍신은덕(豐紳殷德)에게 출가시켜 사돈을 맺음으로서 황제의 신임과 권세는 절정에 달하였다.

하지만 화신이 단순히 건륭제의 총애로 황족의 일원으로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으며, 화신 자신이 빼어난 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아마 중국 역사에서 겸직이 제일 많았던 관료의 한 명으로 꼽을 수 있는데, 몇 개의 주요 직책을 꼽아보자면, 내각의 수석대학사(大學士)·군기대신(軍機大臣)·이부상서(吏部尚書)·호부상서(戶部尚書)·형부상서(刑部尚書)·이번원상서(理藩院尚書) 등 오늘날 장관급에 해당하는 요직은 물론 내무부총관(內務府總管)·한림원(翰林院)의 장원학사(掌院學士)·영시위내대신(領侍衛內大臣)·보군통령(步軍統領) 등을 지냈다. 많을 때는 21개 이상의 주요 보직을 동시에 겸직하였는데,⁶⁾ 이름만 건 것이 아니라 모든 직책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하는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를 절대 신임하고 조정의 많은 업무를 맡긴 건륭제 역시 완벽하다는 뜻의 “십전노인(十全老人)”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정치 군사는 물론 예술과 외국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빼어난 능력을 발휘한 황제였다. 때문에 화신은 황제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걸출한 인재 조건에 딱 맞는 신하였다. 게다가 당시 궁내에서 제일 미남으로 손꼽히기도 한데다, 황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능력 또한 빼놓지 않고 갖추고 있었다. 그는 머리도 좋았지만, 황제를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감성지수, 지금 표현으로 EQ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우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를 유쾌하게 만들 줄 알았으며, 상대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았다. 업무서도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에 능했으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친 건륭제가 화신을 찾아 의논하면 곧 기민하게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황제로서는 유능한 인재 발탁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성

5) 淸 말기의 산문가이자 외교가인 설복성(薛福成, 1838-1894)의 『용암필기(庸庵筆記)』에 따르면 건륭제와 화신의 첫 만남은 다음과 같다. 건륭제가 외출을 할 때 의장용 황색 덮개가 보이지 않았다. 건륭이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의장대를 질책하니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그때 화신이 책임소재만 가리면 되지 모두에게 추궁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 직책을 맡은 자가 그 잘못을 벗어나기 힘듭니다!”라고 대답하니, 황제는 바로 그의 직급을 올려 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용암필기』, 권3의 “入相奇緣”條 참고. 또 화신이 건륭제의 외출 때 어가를 따라 뛰며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어가 속 건륭제가 마침 『논어』 구절을 외우고 있었는데 다음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 계속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었다. 밖에 있던 화신이 다음 구절을 큰 소리로 아뢰어 그 때부터 화신의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청사야사대관(淸史野史大觀)』에 나온다.

6) 기록에 따라 21개부터 34개까지 다양한 숫자가 나오지만 동시에 겸직한 것으로는 21개가 타당해 보인다.

공적이었으며, 화신 역시 황제가 주는 막대한 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화신의 출세는 건륭의 비위를 잘 맞추고 아부를 잘 하여 이룩한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중한 화신의 개인 능력이 그의 성공을 이루게 한 바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출세와 부정축재의 시작, 그 방법

하지만 절대군주의 비호 아래 권력이 거의 무한대로 커지면서 그의 정치적 야욕도 함께 커져서, 사당(私黨)을 조직하여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정적을 쳐내는데 그치지 않고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망도 같이 커져갔다. 화신이 건륭제에게 신임을 얻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첫 계기는 안명(安明)의 불효(不孝)사건 처리와 이시요(李侍堯)의 부패안건 처리에서 마련되는데, 여기서 능란한 책략과 과단성 있는 일처리로 황제의 신임을 얻는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두 사건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和珅 출세의 시작 — 안명(安明)의 불효사건과 이시요(李侍堯)의 부패안건 처리

① 화신이 26살에 시랑(侍郎)으로 임명된 후 안명(安明)이라는 문서 담당 하급 관리가 화신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문서전달이 주된 임무인 정8품 사무(司務)직으로 승진되기를 희망하였다. 화신은 부임 초기엔 청렴한 관리였으므로 당연히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상서(尚書) 풍승액(豐升額)에게 발탁하도록 부탁하겠다고 안명에게 약속해 주었다. 안명은 매우 기뻐하며 화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였고, 화신 역시 풍승액에게 안명을 천거하여 사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천거하였다. 안명은 사무에 임명된 후 즉시 옥(玉) 하나를 화신에게 보냈지만, 화신은 완곡하게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닷새가 지난 후 안명은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았는데, 부친이 세상을 떠났으니 빨리 돌아와 장례를 치르라는 전갈이었다. 당시 청나라 제도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집으로 돌아가 3년 상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명은 막 승진을 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 삼년상을 치르고 싶지 않아 계속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풍승액이 이를 밝혀내고는 같은 권신인 영귀(永貴)와 함께 화신이 안명을 비호했다고 탄핵하였다.

하지만 화신은 영귀의 아들 이강아(伊江阿)⁷⁾로부터 소식을 듣고 황제에게 올리는 2개의 주절(奏折)을 급히 써서 하나는 최고 권력기관인 군기처(軍機處)로 보내고 한 봉은 자신이 보관하였다. 다음 날 영귀는 화신이 안명을 비호하고 있다고 상주하였다. 화신은 즉시 주절을 올려 안명이 집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은 불효이며, 자신은 사찰하지 못한

7) 伊江阿는 永貴의 아들인데도, 화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꼽힌다. 건륭제가 세상을 떠나자 가정제가 아닌 화신에게 편지를 보내 위로했을 정도였다. 아버지 永貴의 전기 끝에 3줄로 간단하게 나온다. 『清史稿·列傳107·永貴傳』 10764-10765쪽 참고.

책임이 있으므로 또한 처분을 받겠다고 하였다. 화신의 즉각적인 대응에 영귀는 크게 놀랐으나, 다시 화신이 사사롭게 부정을 저지르고 부하를 버리고 돌보지 않아 인륜을 위배하였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하였다. 건륭제는 화신이 안명을 탄핵하는 주절이 군기처에서 올라와서 이미 보았다고 말하고, 이는 화신이 안명을 비호할 의도가 없었던 증명이라고 화신의 편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안명은 능지처참에 처하고, 온 가족의 호적을 삭탈할 것이며, 화신은 안명에게 속은 것이지만 감독을 소홀히 한 죄가 있으니 2급을 강등시키되 계속 임용한다고 하였다. 즉 정적보다 한 발 앞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증빙을 미리 황제가 볼 수 있도록 손을 썼다는 것인데, 그만큼 기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신은 문관들에게 돌아가면서 탄핵을 당하게 되는 입장으로 몰리고, 이 일로 조정의 권신인 영귀에게도 죄를 입게 된다.

② 건륭 45년(1780) 정월에 운남 안찰사가 대학사 겸 윤귀총독인 이시요(李侍堯)가 부패 혐의가 있다고 고발하니, 건륭황제는 화신과 형부시랑 객녕아(喀寧阿)·전풍(錢澧) 세 명에게 운남으로 가서 이시요를 조사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처음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만 화신이 이시요 집안의 집사인 조일항(趙一恒)을 구금하고 엄한 형벌을 가하며 자백할 것을 강요하니, 조일항은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이시요의 모든 행위를 다 자백하였다. 화신은 조일항의 진술을 모두 기록하고 이시요 휘하의 고관을 불러와 그들 앞에서 조일항의 자백을 읽으니, 본래 이시요에게 충성하던 관리들도 화신이 이미 증거를 장악한 것을 보고 닥쳐 이시요의 여러 죄상을 고해바쳤다. 이시요에게 뇌물을 바쳤던 관리들조차 자신들은 강요받아 할 수없이 뇌물을 바쳤다고 진술하였다. 화신은 이들 증거를 확보하니 이시요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⁸⁾

화신은 이 사건을 ‘참감후(斬監候)처리’ 의견으로 황제에게 보고하여 사건을 종결짓고,⁹⁾ 운남에서 북경으로 귀임하여 황제를 배알하였다. 그리고 운남에 머물면서 구상한 ‘운남의 소금사무·화폐에 관한 법·변방의 일 등에 대해 아뢰었는데, 황제의 뜻과 맞았으므로 모두 시행하도록 윤허하였다.’¹⁰⁾

이 사건처리를 계기로 화신은 조정에서 행정의 전면적인 능력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두루 받게 된다. 이 공로로 화신은 재정을 관장하는 호부상서(戶部尚書)로 승진하고, 한국의 국

8) 『清史稿·列傳106·和珅傳』, 10752쪽 참고. 안명 사건과 이시요 사건의 개황은 『清史稿·和珅傳』과 焦利, 『大貪官和珅“反貪”』(『人民公僕』, 22기, 2014. 04)과 張宏傑, 『和珅是死得最優雅的貪污犯』(『人物與歷史』, 2011. 02)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9) ‘참감후’는 즉시 참수한다는 뜻의 ‘참입결(斬立決)’과 대비되는 용어로 사형판결을 받은 죄인에게 즉시 집행하지 않고 계속 구금하면서, 조정에서 9명의 중신이 참가하는 일종의 재심위원회인 ‘구경회심(九卿會審)’의 논의까지 기다려 형을 확정짓는 제도이다. 특히 이시요 같은 중신은 규정상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구경회심의 再논의 결과는 여전히 원 판결 유지였으나, 내심 절대 그를 살려주고 싶었던 건륭제의 뜻을 간파한 안휘 순무인 민악원(閔鶚元)의 상소문을 근거로 다시 심의케 하여 이시요의 죽음을 면해주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8)의 焦利의 글, 75-77쪽 참고.

10) 『清史稿·列傳106·和珅傳』, 10752쪽: “面陳雲南鹽務、錢法、邊事、多稱上意、並允行.” 참고.

무위원보다 더욱 권력이 집중된 의정대신(議政大臣)의 반열에 올랐다.¹¹⁾ 얼마 안 있어 화신은 황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어전대신(御前大臣)으로 승진하고, 팔기(八旗)의 하나인 상람기(鑲藍旗)의 만주도통(滿洲都統)으로 보임되었다.¹²⁾

여기까지 보면 화신은 황제가 부여하는 모든 직책을 능숙하게 다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대신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안명 사건에 이어 4년 뒤 발생한 이시요 사건으로 점차 화신에게 악의를 가지거나 심지어 그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화신 역시 처음엔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 두 사건 이후 조정에서 점차 문관들에게 탄핵을 당하게 되며, 중국에는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다.

2) 부정축재의 시작과 그 방법

임용된 지 20년 이상이 된 고위직이 부패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고 독직과 부패에 길들여지면서 조금씩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감각도 무뎠기 때문일 것이다. 화신도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명 사건에서 재빠르고 빈틈없는 처세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이시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재 능력을 발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시요 사건 심리가 종결된 후 이시요와 그 일당의 상당수 재산을 화신이 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건륭제가 내리는 상으로 화신은 본격적으로 권력과 돈을 함께 손에 넣는 맛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反부패주의자로 출발한 서른 살의 화신은 본격적인 축재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최악의 탐관(貪官)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참으로 순식간의 전변이라 할 수 있다.¹³⁾

당시 화신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권력의 정점으로 향해가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들인 풍신은덕(豐紳殷德)이 1789년 4월에 황실의 부마가 되자 자신은 건륭제의 사돈이 되었다. 수시로 황제가 내리는 황금과 골동들을 받았으며, 동시에 문무백관들이 모두 다투어 화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였다. 그렇게 화신은 탐오(貪污)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사당을 결성하면서 점차 큰 세력으로 커가게 되었다. 게다가 같은 해 6월에는 정백기(正白旗)를 지휘하는 시위대신(侍衛內大臣)으로 제수되었으며, 심지어 10월에는 청나라 최대의 도서사업인 사고전서(四庫全書) 편찬을 총지휘하는 정(正)총재로 임명되

11) 『清史稿·列傳106·和珅傳』, 10752쪽: “四十五年, 命偕侍郎喀凝阿往雲南按總督李侍堯私事……命回京, 未至, 擢戶部尚書、議政大臣.” 그리고 주8)의 張宏傑의 글, 49쪽에도 이 사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

12) 청 태조 누르하치(努爾哈赤)는 만주귀족 자제들을 팔기(八旗)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아들 청 태종 황타이지(皇太極)는 몽고팔기와 한인팔기를 증설하였다. 팔기는 민병(民兵)결합, 군정(軍政)결합, 경전(耕戰)결합을 목표로 하는데 팔기는 정황(正黃)·상황(鑲黃)·정백(正白)·상백(鑲白)·정람(正藍)·상람(鑲藍)·정홍(正紅)·상홍(鑲紅)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색깔과 복식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화신은 만주족으로 이루어진 상람기를 총괄하는 직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13) 자세한 내용은 주8) 焦利의 글, 72-77쪽 참고.

었다. 동시에 몽골(蒙古)과 서장(西藏) 신강(新疆) 등지의 변방 민족 사무를 총괄하는 이심원상서(理藩院尚書)까지 겸하게 되었다.¹⁴⁾

화신의 부정축제는 중국역사상 문무대신 중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가 청나라의 가장 극성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축재 행태는 상상을 뛰어넘는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5년의 관리 생활 중 1780년 이시요 사건부터 건륭제의 사돈이 되는 1789년까지 불과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당시 청나라 국고 수입의 3배 이상의 재산 대부분을 긁어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의 축재방법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간단히 이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¹⁵⁾

(1) 직무를 이용한 착복

건륭 43년(1778) 화신은 승문문세관감독(崇文門稅官監督) 직책도 겸하였는데, 지금도 북경에 있는 승문문 앞 큰 길 동쪽에 북경의 세수를 총괄하는 기관이 있어 이렇게 불렀다. 화신은 이 직책을 이용하여 큰돈을 긁어모을 수 있었다. 외지관원과 상인들이 북경에 들어올 때 내는 세금의 액수를 감면해 주고 뇌물을 받거나, 죄를 지어 몰수된 왕공이나 대신들의 재산을 조정의 이름으로 팔아 일부를 챙기는 방법을 썼다. 부정재산 환수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셈인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착복한 뒤 그 직책을 아들 풍신은덕에게 물려주고, 심복이자 집사인 유전(劉全)이 관리에 참여하게 하여 실제로는 정부 기관을 자기 집안의 돈주머니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황제의 신임을 기화로 태후나 황제의 생신 축하연이나 황제의 강남 순시용품 구입, 피서산장의 확장 등 중요 토목 사업이 있으면 바로 화신의 돈벌이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어 건륭제의 80세 수연 경축행사에 드는 모든 설치와 용품, 행사장소 건축, 王公 이하 거부들과 각급 관리들의 헌금, 이 모두를 화신이 장악하였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화신이 다 착복하였다.

(2) 부패사건을 다루면서 수뢰

위에서 언급한 이시요 부패사건을 다룬 것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시요와 그 일당들의 대부분 재산은 화신이 모두 독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륭제의 상까지 더해져 또 다시 큰 재산을 더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14) 자세한 내용은 『清史稿·列傳106·和珅傳』, 10753쪽을 참고.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會加恩中外大臣, 加太子太保, 充經筵講官. 四十八年, 賜雙眼花翎, 充國史館正總裁、文淵閣提舉閣事、清字經館總裁. 甘肅石峰堡回匪平, 以承旨論功, 再予輕車都尉世職, 並前職授一等男爵. 調吏部尚書, 協辦大學士, 管理戶部如故.”

15) 이 부분은 段生軍, 『清朝第一貪官和珅是怎樣斂財的?』(<https://baike.baidu.com/tashuo/browse/content?id=> 검색일:2022.08.15.)의 정리와 다른 자료를 더하여 정리하였다.

(3) 토지점병과 임대료부과

치부의 수단이 토지인 점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각종 당안(檔案)의 기록에 따르면 화신 집안은 “임대 놓은 땅 1266경(頃)을 취하였다”고 한다. 1경은 약 20200평 정도이니 산술적으로 2557만 3200평가량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약 백만 평되는 여의도의 25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는 “취조지(取租地)”, 즉 소유하면서 임대를 준 토지만 계산한 것으로 화신 개인 소유의 장원이나 가족 소유의 非 임대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힘들다.

그는 북경 근방의 직예(直隸: 하북성 일대)와 열하(熱河: 지금의 하북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의 일부)에 다량의 밭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북경 남부의 보정(保定)을 중심으로 한 지역, 북경동부의 천진(天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그리고 북경지역 안에서도 대흥(大興) 등 6곳, 심지어는 동북의 봉천(奉天: 지금의 심양) 등지에도 소유 토지가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고액의 임대료 수입을 올린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4) 부동산 임대

위에서 언급한 토지를 제외한 화신의 부동산은 주로 주택·가게·수공업 작업실과 자신 소유의 장원에 들어와 거주하던 민가주택 등이 있었다. 이들 부동산은 화신이 건축하거나 장기임대를 통해서, 그리고 황제의 하사 및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받은 대가 등을 통해 획득하였다. 북경 한 도시에서만 화신의 부동산이 內城·外城·皇城·宮城 등에 골고루 퍼져 있었을 정도였다. 특히 대량의 부동산을 세를 주고 폭리를 취하는 방법으로 축재하였다.

(5) 고리대금과 전당포 영업

전당포·은호(銀號: 은행과 유사한 금융기구)·전점(錢店: 태환영업 전문 가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고리대금업의 영역에 속하는데, 현금을 빨리 융통할 수 있는 사업이라 화신 축재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화신은 점차 돈을 벌 수 있으면 어떤 일도 한다는 원칙으로 이들 사업장을 통해 관리와 상인 등 시민은 물론이고 친척과 수하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고리대금을 행하였다. 외숙인 명보(明保)에게 빌려준 1만 5천 은량에 월 1%의 이자를 붙여 결국 21450 은 냥을 받아낸 일이나, 집안의 하인에게도 대출하여 대대손손 갚지도 못할 이자를 부과한 일 등이 유명하다. 그 밖에도 토지 등의 담보를 요구하고 상환 못하는 경우 그대로 몰수하는 등 여느 사채업자의 행태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청대에는 전당포 영업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화신은 전당포 경영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받은 뇌물이나 착복한 돈을 전당포로 돌려 이른바 ‘돈세탁’하는 창구로 사용하였다.

(6) 행사와 선물

시간이 지나면서 화신은 점차 돈을 모으는데 더욱 심취하여 이미 한 국가의 일 년 수입 이상을 거두어들이고도 돈 벌수 있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연회·생일잔치·결혼기념일·아들손자 만월(滿月: 백일에 해당)·부모생신 등 모든 집안행사를 돈벌이 기회로 이용하여 축하금과 값비싼 예물을 거두어 들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기회는 각 지역의 수령들과 주변 국가에서 황제에게 바치는 진귀한 특산물을 접수하는 직책을 맡으면서 생겼다. 이들 중 건륭황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라 바치고 나머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황궁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이 화신의 집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진귀한 보물 중 진주목걸이만도 200여 개가 있어 황궁과 비교하면 몇 배에 달하였다.”¹⁶⁾ 심지어 그중 한 알은 건륭제 어관(御冠)에 박아놓은 진주보다 더 컸다. 이 문제는 훗날 가정제가 화신을 치죄하면서 열거한 죄상의 하나로도 꼽혔다.

(7) 과거제도 장악과 수취

화신은 또 한림원으로 들어가 한림원 장원학사(翰林院掌院學士)에 임명되어 또 다른 장원학사인 혜황(嵇璜)과 함께 한림원을 관장하였으나, 혜황은 연로하고 쇠약하여 주요 업무는 거의 화신이 대리하도록 하였다. 화신은 이때부터 과거제도를 장악하여 마음대로 수재(秀才)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값이 비싸면 뜻한 바대로 해주는(價高者得)” 거래 조건이 형성되었다. 화신은 이 지위를 이용해 조정의 선비들을 농단하여 그들 중 진사(進士)가 되고 싶은 자들은 화신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만약 화신이 보기에 ‘문제’가 있으면 제명해 버렸으므로 건륭 말기의 선비들은 거의 화신의 문하에서 나오게 되었다.¹⁷⁾

위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온갖 부정축재 방법이 망라되어 있는 종합이라 할 수 있겠다. 학자에 따라 화신 성공 원인을 돈만 사랑했지,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 당파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수궁이 가는 분석은 아니다. 위에서 본 대로 온갖 기구의 수장을 맡아 능력을 발휘하는 자체가 권력 추구의 유력한 방편이었으며, 나중에는 당파에 참여할 필요 없이 그 자신이 거대한 당파의 수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所藏珍珠手串二百餘，多於大內數倍……” 『清史稿·列傳106·和珅傳』, 10756쪽 참고. 이 부분은 화신을 탄핵하는 죄상 20개 중 15번째 죄이기도 한다.

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清史稿·列傳105·阿桂傳』, 10745쪽 참고.

Ⅲ. 건륭의 화신 비호에 관한 문제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건륭제는 중국 역사상 제국을 최고 전성기로 이끈 명군의 반열에 있는 황제로 절대 혼군(昏君)이나 용군(庸君)이 아니다. 그런 영명한 황제가 화신의 부패행위에 대한 탄핵 상소도 여러 번 받았는데, 화신의 부패행위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황제 자신이 평소 부정부패를 가장 혐오하는 황제로 자처하였는데, 어찌하여 화신의 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가에 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황제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어 황제가 원하는 바를 무난하게 채워주었고, 속마음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던 화신이 황제의 기분을 적시에 맞추어준 점도 신임을 얻었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 포괄적이고도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러나 황제에게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것 말고도 화신은 부패행위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는 절대 깨지 않았던 점을 주목할 만하다. 즉 자신이 정한 금도를 지켰다는 것인데, 이는 황제와 무관하게 고수한 원칙으로 화신은 두 종류의 돈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

첫째, 백성들이 기아나 재난을 당했을 때 구제용으로 지출하는 돈은 절대 손대지 않았다. 건륭 시기에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매년 가뭄과 홍수, 그리고 메뚜기 떼의 침입과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실제 집행하는 지출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층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단계씩 내려갈 때마다 지방 관리들이 조금씩 착복하면서 정작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곳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과정을 주재하던 책임을 여러 번 맡았던 화신은 이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그 자신 청렴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많은 조정 대신들이 매우 면밀하게 자신의 행위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화신은 여기에 더해 이 구휼(救恤)금을 착복한 다른 관리를 잡아내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 되면 재난 지역에 스스로 적지 않은 돈을 보태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감숙(甘肅)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조정에서는 화신을 파견하여 구제를 책임지게 하였다. 현지에 도착해 보니 조정에서 내려 보낸 300만 은량(銀兩) 중 상당액이 이미 각급 관원의 주머니로 들어간 뒤였다. 화신은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착복에 참여한 관리들을 모두 색출하여 처벌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화신은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동시에 지방 관리들을 조직하여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50여만 은량이 모이자 전액 구제 활동에 사용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자신을 주목하는 속에서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게 하지 않는 자기 보호책인 동시에 구휼금에 손을 댔다가 유발할 수도 있는 지방의 폭동 등을 미리 방지하여 사후에 책임질 소지를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시험에 관한 경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이는 화신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어려서 부모를 다 잃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지만, 그는 과거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황제의 호위병에게서 출발하여 출세의 길을 달렸다. 그러므로 출세한 뒤에도 과거시험을 목표로 삼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젊은 지식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히 과거에 관한 경비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 인재 선발의 가장 중요한 방식인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황제부터 극도로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리 큰돈도 아닌 것을 건드렸다가 황제의 진노를 사는 것을 예방하는 의미도 크겠다.¹⁸⁾

화신의 이 원칙은 II장 2절의 2) 부정 축재의 시작과 그 방법의 ⑦ 과거제도 장악과 수뢰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화신이 건드리지 않는 것은 공금을 말하며, 사사로이 뇌물을 받고 진사로 통과시켜 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 위 두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두 원칙을 나름의 선을 지켰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더욱 큰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의 부패 행위는 이 금기가 무의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건륭제가 평생 동안 화신을 비호했던 이유에 대해 논의가 적지 않은데, 우선 위에서 언급한대로 ‘황제의 기분을 적시에 맞추어준’ 화신의 행위부터 보기로 한다. 황제의 “하강남(下江南)”에서 “의죄은(議罪銀)제도”로 연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건륭의 “下江南” 경비 염출 문제

건륭 자신이 만년에 이르도록 부패에 관해 여전히 결연하게 징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건륭제 행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인 『건륭기거주(乾隆起居注)』 60년 8월의 기록을 보면 건륭 자신이 각 성(省)의 총독과 순무(巡撫) 중에서 청렴하고 깨끗하게 명예를 지키는 자가 열에 두 세 명도 넘지 않는다는 한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¹⁹⁾

하지만 건륭 자신이 직접 강남으로 행차하게 되자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다. 건륭은 평생에 걸쳐 여섯 차례 강남으로 순시를 갔는데,²⁰⁾ 말이 순시지 유람의 성격이 더 짙었다. 황제

18) 건륭제가 화신의 부정을 알면서도 비호해준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수많은 논문이나 글이 나와 있다. 樊斌의 『巨貪和珅為何乾隆時期沒被扳倒』(『人民公僕』, 35기에 수록. 2015. 5월)와 夢曉의 『貪婪蠹國成肥碩 一朝籍沒殺身禍——簡評清朝和珅貪汙案』(『人民司法』, 1989.05.01)을 참고. 이밖에도 단편 글은 百度(바이두)에서만 103편을 검색할 수 있는데, 필자는 주로 『皇帝明知和珅貪汙，為何卻從未動他？只因他這兩類錢從來不碰。』, 『乾隆明知道和珅是巨貪，為什麼一直不殺他。』, 『乾隆明知道和珅貪，為何皇上還不處決他?』 등을 참고하여 종합하였다.

19) 그리고 이에 앞서 건륭 57년에 절강순무(浙江巡撫)인 복송(福崧)과 양회(兩淮)의 염운사(鹽運使)인 시정(柴楨)의 백은 22만 냥 국고 손실 사건에 대해서도 건륭은 주살(誅殺)이라는 단호한 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車惠媛, 『18세기, 清朝 貪汙案 속의 題補制』, 『明清史研究』 第27輯. 404쪽과 注3)을 참고. 그리고 『乾隆起居注』는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2, 桂林.

의 유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구부터 지나가는 길가에 사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은 작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황제의 자부심과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감당해야 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였으므로, 황제의 반부패 의지만으로는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건륭의 이런 취향은 도리어 황제 스스로 부패를 불러오는 행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기록에 전하는 당시 강남행의 행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일을 책임진 일부 지방 관리의 횡포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 그들은 이를 기회로 연도의 백성들에게 금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조금만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백성들의 집을 철거해 버리거나, 조상의 무덤을 평평하게 깎아버리고, 무고한 백성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지만 백성들은 황제의 사업이라는 명목에 눌러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황제가 행차하는 장면은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우선 황제와 함께 길을 나서는 하는 왕공대신들과 비빈, 그리고 관원은 모두 2천여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강남으로 이어지는 대운하에 동원된 대형 유람선이 1000여 척, 육로에서 필요한 말 6000여 필, 마차 400량, 낙타 800두, 밧줄 끄는 인부(織夫) 3600명을 징발하였다. 그리고 기타 부역을 위해 동원한 민간 부역자 또한 만 명이 넘었다.

뿐만 아니다, 북경에서 항주(杭州)까지 행궁을 무려 30개소를 지었으며, 행궁이 없는 곳은 몽고과오(蒙古包)를 세웠으며, 어가(御駕)가 지나는 모든 길은 사전에 물을 뿌려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했다. 연두 30리 이내에 있는 모든 지방 관원들은 관복을 입고 어가를 맞이해야 했으며, 지방의 지식인인 신사(紳士)를 포함한 백성들 모두 현장에 나와 줄지어 무릎 꿇고 있어야 했다. 황제는 이 정도는 되어야 자신의 성세를 과시할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에 영합한 지방 관리와 부호들은 온 힘을 다하여 온갖 과도한 행태로 아부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뱃길 위에는 용머리를 하고 불을 밝힌 배를 띄워놓았으며, 강가에는 찬란하게 장식한 기둥을 세우고 양주(揚州)·소주(蘇州)·항주 등 황제 일행이 지나가는 도시의 점포들은 전부 새로 칠을 하고, 관리들은 진강(鎮江)의 성 밖에 홍록색의 비단으로 거대한 복숭아를 장식하여 십 리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황제의 용주(龍舟)가 물 위에 보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고 거대한 복숭아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극장이 하나 등 장하고 수백 명이 연기와 노래를 하고 있었다.²¹⁾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여섯 차례나 강행한 건륭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단순하였다. 자신은 태평성대의 황제로서 백성들의 사치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든 완벽한 황제이기 때문에 군주의 위엄을 과시할 겸, 강남의 양주·소주·항주 등 도시와 평생 다 볼 수도 없다는

20) 구체적인 년도는 다음과 같다. 1751년(건륭16년)·1757년(건륭22년)·1762년(건륭27년)·1765년(건륭30년)·1780년(건륭45년)·1784년(건륭49년)

21) 자세한 내용은 龍靜霖, 『乾隆下江南』 (<https://baijiahao.baidu.com/s?id=170534637&wfr:> 검색일2022.09.11)과 余杰, 『乾隆爲何下江南』, 『領導文萃』(2000.12.15.) 124-126쪽과 司伊平, 『乾隆皇帝爲何下江南』, 『人才資源開發』(2017.09), 19쪽 참고.

강남의 아름다운 경치를 기꺼이 즐겨도 상관없으며, 스스로 그럴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물론 일세의 군주답게 건륭의 사회의식이 무디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강남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드는 경비가 너무 막대한데다. 이런 낭비 활동이 6차례나 겹치면서 거의 2000만 냥의 경비를 초과하였다. 시간상으로도나 규모면에서 이런 낭비는 역사상 흔치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정치부패의 싹이 트는 것은 어렵지 않은 환경이었다. 이 당시 정직한 대신들이 부패와 낭비의 폐단을 지적한 경우 또한 없지 않았다. 시랑(侍郎) 한 명이 폐하께서 남순(南巡)하실 때마다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다는 내용의 상주를 올렸다. 하지만 연로한 황제는 상주문을 보고 내우 화를 내었다. 노기 충충하여 반문하였다. “백성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지 말해 보시오. 원망한다고 했는데 누가 원망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오!” 당연히 이 시랑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황제의 반박 자체가 다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당하고, 또 유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신하들의 부패는 참을 수 없지만, 나의 호화로운 부패가 아니라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황제는 시종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 대학사 진금이(陳錦台)는 건륭제가 절강(浙江)의 호주(湖州)를 순유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건륭제는 “집이 호주로 가는 것은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뽕나무 심고 양잠하는 모습을 보려하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진금이는 침통하게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이번에 호주를 갔다 오시면 다음번엔 호주에 양잠이 없을 것이옵니다. 백성들의 원기가 몇 대가 지나도 회복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 두 신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되자 청나라 조정부터 백성까지 크게 포장하고 사치하고 아부하여 충애를 일으려는 풍조가 갈수록 성하게 되었다.

건륭 통치 기간에 청나라의 국력은 최고조에 달해있어 당시 중국의 국민총생산은 전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국고에는 7-8천만 량 이상의 백은(白銀)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건륭 말기를 지나면서 국고에는 반도 남지 않았는데, 상당부분 건륭의 낭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백성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되면서 건륭 말기에 ‘대청제국’이 점차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다는 말은 객관적인 평가로 보인다.²²⁾

2. 의죄은(議罪銀) 제도의 창안

건륭제는 절정에 도달한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 정당하게 집행되는 예산 이외에도 여섯

22) 以上은 위 주 21) 龍靜霖의 “乾隆下江南” 내용을 정리하고 인용하였음.

변 강남으로 내려가는 등 사사로운 경비염출이 많이 필요하였는데, 이 경우 국고를 축내는 방식으로는 지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내각의 대신들 중 공금을 엄정히 집행하기를 요구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황제로서는 사적으로 처리해주는 화신 같은 신하가 매우 필요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착복은 황제도 눈감아 주었다. 즉 건륭제와 화신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일종의 공생관계가 형성된 셈이다. 이 공생을 위하여 화신은 “의죄은(議罪銀)” 제도를 창안해 내었다. 글자 그대로 관리 중 죄를 지은 자가 일정한 액수를 바치면 죄를 경감해 주거나 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건륭 말년인 건륭 55년(1790)에 창안한 제도이니 오랜 태평성대의 타성에 젖어 해이된 기강의 일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미 노쇠한 황제의 판단력 저하와 황제의 사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화신의 영합 심리가 결합한 결과로 보인다. 이 의죄은 제도는 건륭의 성세가 서서히 끝나가는 추세를 좀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부패한 제도의 대표로 보인다. 그 병폐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돈으로 죄를 대신하게 되면, 의죄은을 납부하는 관리들이 더욱 방자하게 겁 없이 굴게 될 것이며, 청조 관리의 부패를 더욱 심하게 할 것이다.
- ② 관원을 선발하는데 재산을 굶어모으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변태적 양상을 보인다면, 다시는 행정 능력을 중시하지 않게 되니 청나라 관리들의 전체적 수준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다.
- ③ 자신이 바친 의죄은의 지출을 만회하기 위해 관리들은 기층 백성들을 부담을 더욱 가혹하게 강요하여 사회 불안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 ④ 돈으로 죄를 대속하고 죄가 있어도 추궁하지 않게 되면 법률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청 왕조의 쇠약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²³⁾

여기까지 화신이 건륭제를 위해 막대한 경비를 염출하는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요인, 즉 건륭의 강남 순시에 필요한 경비 마련 등 사적인 용도를 위해 창안한 의죄은에 관해 살펴보았다.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이들 행사를 위하여 화신이 꺼낸 방안들은 건륭입장에선 화신이 마치 마술사처럼 보였을 것이다.

3. 화신 재산에 관한 논쟁

1799년 건륭제가 세상을 뜨고 불과 8일 후 아들 가경제는 장례절차를 무시하고 급사중

23) 뿐만 아니라 화신은 동인도회사와 거래에서 폭리를 취하였다. 이 시기 건륭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특히 조선 사신의 보고가 적지 않은 중국 자료에 인용되어 있다. 조선 사신은 홍낙유(洪樂游)로 1797년 부교리 때 서장관의 임무를 띠고 중국에 다녀온 그가 귀국하여 올린 보고에 따르면 이때 건륭제가 초기 치매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였다고 한다. 1797년은 가경(嘉慶) 2년으로 건륭이 태상황으로 물러난 지 2년이 지나 86세가 되었지만, 화신을 수석군기대신(首席軍機大臣)으로 임명할 정도로 영향력이 아직 있었던 때였다. 홍낙유의 중국방문 기록은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윤6월 15일 계축 2번째 기사 참고.

(給事中) 왕념손(王念孫)에게 화신의 스무 개의 죄상을 작성하여 탄핵하게 하였다.²⁴⁾ 이어서 곧바로 화신을 체포하여 하옥시키고 결국 자신의 집에서 자진케 하였다. 이어서 의친왕(儀親王) 영선(永璘)과 성친왕(成親王) 영성(永瑍)에게 화신의 집을 뒤져 재산을 엄밀히 조사하라고 명령하였는데, 3일 후 가경은 화신 집에서 나온 셀 수도 없는 은량과 무수한 골동 서화를 보고 그의 “부유함이 한 나라를 대적할 만하다(富可敵國)”라고 표현하였다.

이후 화신이 부정 축재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먼저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약 2000만 냥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화신 명의의 전장(錢莊) 등 금융기관과 비단 등 가게의 고정자산과 수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들을 전부 합하여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⁵⁾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화신의 재산 규모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우선 『淸史稿·和珅傳』에 따르면 그가 죽고 난 뒤 그의 집을 조사한 결과 황금 32000여 냥, 백은 300여 만 냥,²⁶⁾ 전당포 75개, 금융기관(銀號) 42개와 대량의 가옥과 토지 등 부동산, 진귀한 옷 보석 골동 서양물건 등 그 숫자를 셀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109건의 상세 물품목록 중 26개의 물품 가격만 2.2억 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⁷⁾ 하지만 금은만 해도 기록에 따라 『淸史稿·和珅傳』과는 달리 황금 5800여 만 냥, 백은 5400만 냥, 혹은 9400만 냥 등으로 20배 이상으로 추정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설복성(薛福成)의 『용암필기(庸庵筆記)』에서는 화신의 총재산을 2억 2천 389만 5160냥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후에도 평가의 기초가 될 정도로 영향이 컸다.²⁸⁾ 그리고 청대 후기의 학자 서가(徐珂)는 화신의 재산을 8억 은량으로 추정하였다.²⁹⁾ 심지어 20억 냥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청조야사대관(淸朝野史大觀)』의 “화신집안재산(和珅家財)” 항목에서 나온 숫자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0억 냥은 정부 재정수입 7~8천만 냥보다 월등히 많은데, 20년 내각 대신을 한 화신이 축재한 바는 한 나라의 20년 세입보다 많

24) 왕념손이 작성한 20개의 죄상을 요약하면, 태자 책봉을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어 국정을 농단한 죄, 황궁에 들어올 때 예의를 갖추지 않은 죄 2개, 궁녀를 취하고 군대 보고를 임의로 늦춘 죄, 건륭제가 와병 중인데 웃고 떠든 죄, 황제의 비답(批答)을 함부로 작성한 죄, 호부(戶部) 사무를 독점한 죄, 상주를 임의로 은닉한 죄, 천연두에 면역된 몽골 왕공도 복경에 못 오게 한 죄, 친한 자들을 비호한 죄, 군기처 인원을 임의로 철수시킨 죄, 사가의 건축이 궁실보다 더 호화로운 죄 2개, 보석·금은·의복·전당포 등으로 축재한 것이 황궁보다 많은 죄 5개, 家奴의 재산도 많은 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淸史稿·列傳106·和珅傳』, 10756-10757쪽 참고.

25) 혹자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여 인민폐 약 880억 위엔(元), 즉 우리 돈 약 15조원으로 추산하지만, 당시 청나라 국가 재정수입인 8000만 은량의 3배에서 9배까지 추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돈 가치로도 적어도 15조 원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6) 『淸史稿·列傳106·和珅傳』에 열거된 죄상 20개 중 18번째에 나오는 내용이다. 10756쪽 참고.

27) 瞿林東·葉小賓주편, 『中國歷史·七年級』, 下冊(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16) 103쪽 참고.

28) 薛福成, 『庸庵筆記』(江蘇古籍出版社, 南京) 권3, 5쪽 참고.

29) 淸 말기 徐珂의 『淸稗類鈔』(中華書局, 2010, 北京) 第4冊, 1569쪽 참고. 원문은 “籍沒家産, 所得凡值八百兆有奇, 悉以輸入內府.” 여기서 ‘八百兆’는 800조가 아니라 8억을 뜻한다.

다”³⁰⁾

이렇게 화신이 치부한 재산의 가치는 2억 은량(銀兩)에서 8억 은량, 심지어 20억 은량 등 기록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³¹⁾ 이 액수는 약 7~8천만 은량으로 추정되는 당시 청나라의 1년 재정수입과 비교하면 거의 3년에서 15년의 재정수입과 맞먹는 셈이다.

1) “화신이 넘어지니, 가경이 배불리 먹었다(和珅跌倒, 嘉慶吃飽)”

화신이 살던 저택의 내부 장식은 황실의 화원보다 화려했으며 그 호화로움은 다른 대신들의 저택과 비길 바가 아니었다. 화신이 자결로 생을 마감하자 당시 민간에는 “화신이 넘어지니, 가경황제가 배불리 먹었다(和珅跌倒, 嘉慶吃飽)”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화신이 죽자 그가 살던 저택을 가경황제가 건륭의 열일곱 번째 아들이자 자신의 동모제(同母弟)인 애신각라 영린(愛新覺羅·永璘)에게 주었기 때문이다.³²⁾

이 말이 유행하면서 화신의 재산 규모와 가경제가 차지한 경제적 이익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데, 이보다는 가경이 노린 정치적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대학자 관문발(關文發)의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³³⁾ 그의 견해를 간략히 다음과 같이 요약하기로 한다.

가경제가 화신의 재산을 조사토록 것은 서가(徐珂)가 말한 “가경이 배불리 먹었다(嘉慶吃飽)”는 뜻과는 달리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8억 냥 또한 너무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다. 그 동안 나온 재산목록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인종(仁宗, 즉 가경제)실록』에는 화신 재산에 관한 상유(上諭)가 많은데 주요한 것 2개만 보면, ① 4년 정월 11일, 화신의 진주가 황제관 위에 장식된 진주보다 더 크다. ② 정월 15일, 공포된 화신의 20개 죄상 중 18조에서 화신의 재산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벽속에 금 26000여 냥, 사금고에 6000여 냥, 지하에 은 300여만 냥 정도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³⁴⁾

30) “二十億兩有奇, 政府歲入七千萬, 而和珅以二十年之閣臣, 其所蓄當一國二十年稅入而強.” 『清朝野史大觀』의 작자는 “小橫香室主人”으로 전해지는데, 그를 徐珂로 보기도 한다. 청대의 傳聞이나 정사에 없는 기록을 모아놓은 책으로 164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15년에 초판이 나왔으며, 백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가 2010년 재판하였다.

31) 蕭一山の 『清代通史』에 의하면 약 6쪽에 걸쳐 화신의 재산 목록을 열거해 놓았는데, 화신 재산 규모에 관한 기록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中華書局, 1987년, 北京.

32) “和珅跌倒, 嘉慶吃飽”는 徐珂, 『清稗類鈔』, 第4冊의 1569쪽에 나온다. 당시 민간에서 널리 회자되던 말로서 일설에는 어린이들이 동요처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화신의 저택은 이후 “경왕부(慶王府)”로 부르다가 輔仁대학이 구입했다가 1952년 북경사범대학과 합병한 뒤, 지금은 공왕부박물관(恭王府博物館)이 되었다.

33) 關文發, 『關於“和珅跌倒, 嘉慶吃飽”問題的質疑』, 62쪽 참고. 『華南師範大學學報』, 1991년 제2기.

34) ①은 『清仁宗實錄』 제1책, 권 38, 422쪽에, ②는 같은 책 429-430쪽에 나온다. 그리고 『清史稿』(中華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실록에 전하는 화신의 자술과 자백을 종합하면 위 ① ②항 말고도 가옥·마차·전당포·토지·은호(銀號)를 다 합쳐 십여만 냥 정도인데, 이는 큰 재산이긴 하지만 8억 냥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청 재정이 좋았을 때도 연간 재정수입이 8천만 냥이었는데, 개인의 재산이 8억 냥이면 이는 단순히 가정이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다. 만약 화신의 재산이 8억 냥이었다면, 이를 몰수한 뒤 가경 시기의 재정이 그렇게 급속하게 나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가경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화신이 건륭과 여러 황자들 사이를 이간시켜 여러 황자들이 부친으로부터 욕을 당한 일과 대신들의 승진과 강등에 간여한 일 등의 농단 행위들이었다. 이를 태자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태자로 책립된 기밀을 하루 전에 먼저 통고해 주면서, 이를 마치 화신 자신의 공으로 꾸미려 시도한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였다.³⁵⁾

위와 같이 관문발이 주장하는 대로 가경제가 화신을 제거한 진짜 목적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는 관문발의 견해에 필자는 대체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안으로는 상시부터 밖으로는 총독과 순무(巡撫)에 이르기까지 화신의 문하에서 나오는 자가 많았다(內而尚侍, 外而督撫, 多出和門)”는 말이 나올 만큼 건륭 후기에 기강이 흐트러지고 직간접적으로 화신의 부패행위와 국정농단과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신을 징치한 3가지 이유로 ① 화신을 주살함으로서 조정 기강을 바로잡기 ② 군대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강을 바로잡기 ③ 화신 주살과 백련교도의 난에 대한 자기반성을 보이면서 민심을 안정시킴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전성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건륭이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겠지만, 화신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가경은 부패의 상징이 된 화신을 죽임으로써 나쁜 정치를 일신하고 새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대신들의 공감을 얻고 흐트러진 민심을 얼마간 수습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가경의 화신 처단은 확실히 정치적이다.³⁶⁾

신하를 처단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죄상이 탐오(貪污)인데 이 죄목을 가장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죄를 물었다는 것은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손 안에 들어온 죄인의 재물을 굳이 건드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처단이 가능해서, 아니면 “嘉慶吃飽”라는 시중의 수군거림을 피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훗날 화신이 자결 명령을 받고 죽고 난 뒤에도 그의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할 것을 주장하는 이도 계속 나왔다. 당시 부도통(副都統) 살빈도(薩彬圖)는 “화신의 가산이 매우

書局, 1986, 北京) 10756-10757쪽의 내용과도 합치된다.

35) 關文發, 『關於“和珅跌倒, 嘉慶吃飽”問題的質疑』, 65-66쪽 참고. 『華南師範大學學報』, 1991년 제2기.

36) 李泰華 역시 관문발과 같은 맥락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李泰華, 『和珅跌倒, 嘉慶吃飽, 嘉慶殺死和珅的真正原因並不是因爲‘貪’』, 참고. 2021.03.04. 百度 검색.

많아 결코 이번 조사에서 나온 숫자에 그치지 않을 것(和坤家產甚多, 斷不止此查出之數)”이라고 주장하며, 화신의 집에서 금은과 장부를 담당했던 여종 4명을 엄히 심문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화신의 집 주변을 파헤쳐 땅에 묻어 은닉한 금과 은을 찾기도 하였으며, 화신집의 장부와 대형 은호(銀號)들을 철저히 대조 조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가정은 이를 듣고 크게 살빈도를 질책하고는 혁직 처분까지 논의 하도록 하였다.³⁷⁾

2) 건륭 말기는 청나라 내리막의 시작인가?

여기서 하나의 쟁점에 대해 잠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위에서 건륭 말기엔 대청제국이 점차 내리막길로 가는 시작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그래서 화신의 부패는 건륭말기의 쇠락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흔히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건륭 말기를 본격적인 쇠퇴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론자의 반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민대학의 청사(淸史)연구소 고왕룽(高王淩) 교수는 『건륭만경(乾隆晩景)』에서 건륭의 전 50년에 비해 만년의 십여 년은 가장 실패하고 비판받는 시기라는 일반 인식에 반대하고 있다.³⁸⁾ 그의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자체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이 시기는 비록 전 단계 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전 단계의 발전추세와 상응하는 발전 중에 있었으며, 당면한 문제들은 발전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는 인구가 너무 많은데 백성들이 가난해지자 재정이 말라버렸고 경제 전반이 약화되었다는 전통적인 설명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건륭 중기 이후 정부에는 8000만 은량 정도가 있었으며, 매년 정부의 재정 결산 후 500만 냥이 남았다. 건륭의 마지막 10년 동안 거의 매해 조세를 면제해 주었으니, 이는 정부의 재정능력이 하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일부 학자들은 건륭이 금천(金川)과 먼 전(緬甸: 지금의 미얀마) 반란을 진압하는데 지나친 군비를 지출하였다고 비판하는데, 연구 결과 조정 경비의 총 지출액은 상황이 가장 나쁜 마지막 기간에도 정부의 일반적인 지출의 5%를 넘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의 세수가 국민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아주 낮아 대략 5%를 초과하지 않았다.

즉 재정능력이 양호했으며 전혀 국고가 고갈된 것이 아니라는 논지이다. 하지만 조정 경

37) 참고 원문은 “和坤既伏法, 仁宗不欲株連興獄, 而薩彬圖屢疏言和坤財產多寄頓隱匿, 有嘗管金銀使女四名, 請獨至慎刑司訊鞫. 詔嚴斥之, 命從王大臣訊, 不得實, 議革職……” 자세한 내용은 『淸史稿·列傳 140·薩彬圖傳』, 11280쪽 참고.

38) 자세한 내용은 高王淩, 『乾隆晩景』(中國地圖出版社, 2018, 北京)의 6장 『乾隆朝經濟史回顧』를 참고. 嚴友良의 『乾隆晩景另一面』도 같은 논조를 유지하며 高王淩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비의 총지출과 정부 세수가 일반 지출과 국민경제 총량의 5%를 초과하지 않아서 재정이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 화신의 부패에 관용적으로 작용했을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정작 국고를 탕진한 때는 다음 황제인 가경(嘉慶) 초년으로 백련교도(白蓮教徒)를 진압하느라 2억 여 냥을 쓰면서 건륭이 축적해둔 7-8천만 은량을 다 써버렸다는 것이다.³⁹⁾

하지만 고왕륭의 재정 건전 주장을 받아들이다라든가 건륭 말기의 사치와 부패가 제국을 쇠약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의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 보자면 건륭 말기, 즉 1790년대 중국은 강희(康熙) 옹정(雍正)과 60년에 가까운 건륭의 통치를 합하여 약 150년에 가까운 태평성대를 지나면서 대제국은 점차 사치와 부패로 물들어 가면서 기울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관리들은 청렴하지 않아 민중을 향한 수탈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 반작용으로 민란이 서서히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거기에 쇄국정책을 너무 오래 강행한 까닭에 중국 밖의 외국, 특히 서양 열강과의 거리가 이미 상당히 멀어지고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화신 등 권신의 부패행위는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인 것은 물론, 제국을 내리막길로 내몬 원흉 중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훗날 중국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함포소리와 함께 시작될 중국 근대의 출발이 건륭 말기에 이미 마련되기 시작한 셈이다. 불과 50년도 안 되어 아편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추론은 혹자는 화신의 이 모든 부패행위를 건륭은 다 알고 있었지만, 건륭이 극도로 총명하여 고의로 화신을 방치하고 아들 가경에게 넘겼다고 추측하기도 한다.⁴⁰⁾ 아들 가경이 자기 손으로 화신을 타도하게 함으로써, 민심을 얻고 조정에서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화신의 거대한 재산으로 국고에 충당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자 하는 건륭의 큰 그림이었다는 얘기이다.

매우 흥미 있는 추론으로 일종의 음모론에 속하는 분석이지만, 건륭이 그렇게 총애했던 화신에게 이런 정도까지 큰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건륭과 가경父子의 관계는 일반인과는 달리 매우 정치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사사로운 부자의 정으로 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권력이 강하고 약함에 상관없이 황제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보좌해 주는 신하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화신만큼 자신의 뜻을 대신 이루어줄 수 있는 신하는 없었다. 때문에 다른 방법도 가능한데 자신의 충신을 희생하여 아들을 고려했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륭제의 입장에서 화신이 축적한 전체 재산의 규모를 자세히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극히 사적인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 정도의 축적은 용인해 줄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9) 백련교는 마니교(摩尼教) 미륵교·도교·불교 등이 혼합된 종교이다. 사천 현지 주민의 갈등과 지방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결합하여 일어난 백련교도의 난은 가경 원년부터 9년(1796-1804)까지 청 중기 가장 파괴적인 농민 봉기였다.

40) 주 18)의 「皇帝明知和珅貪汙，爲何卻從未動他？只因他這兩類錢從來不碰」 참고.

다.⁴¹⁾

이렇게 화신 사건을 일단락 짓자 유용(劉庸)은 누군가 다시 화신 일당에게 보복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사건을 확대하지 말고 화신 일당을 선처할 것을 가경제에게 건의하였다. 이렇게 정치적 안정을 증시한 가경황제에 의해 화신을 자살케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 그의 일당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사태를 종결지었다.⁴²⁾ 즉 화신이 죽은 다음 날, 가경제는 화신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다는 명령인 상유(上諭)를 내리고, 대규모로 백관들이 연루되지 않게 하여 조정신하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화신은 세상을 떠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탐관으로 역사상 최고의 부자 중의 한 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⁴³⁾

하지만 가경제가 이 안건을 정치권으로 확대시키지 않고 화신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여 해결한 것은 나름 깔끔한 처리라고 봐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부패 근원을 뿌리 뽑지 못한 점은 가경제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옥중에서의 자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가경 4년(1799) 정월에 태상환 건릉제가 붕어하자, 가경은 화신에게 장례를 총괄할 것을 지시하여 건릉의 관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의 주요 보직을 다 혁직(革職)하였다. 정월 13일에 가경은 화신의 20개에 달하는 대죄를 선포하고 그의 집을 봉쇄하고 수색하라는 교지를 내렸고, 그 결과 밝혀진 그의 재산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정월 18일 조정에서는 능지처참을 논의하였으나, 건릉의 딸 고윤화효(固倫和孝) 공주와 유용(劉庸) 등의 건의로 결국 선대의 대신을 지낸 점을 고려하여 옥중에서 자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집에서 흰 비단으로 자살하라는 교지가 내렸다. 그리고 그의 큰 아들 풍신은덕(豐紳殷德)은 고윤화효 공주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연좌를 면할 수 있었다. 그는 죽기 3일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시를 한 수 남겼다.

별이 차가운 달을 둘러있고, 포승줄에 외로운 신하는 운다. 이 모습 마주하니 지난 세월 슬프도다. 재주를 품어 이 몸을 망쳤나니.(星辰環冷月, 縲紲泣孤臣. 對景傷前世, 懷才誤此

41) 자세한 내용은 丁元浩, 『皇帝明知和坤貪汙, 爲何卻從未動他? 只因他這兩類錢從來不碰』을 참고. 그리고 樊斌의 “史上巨貪和坤爲何乾隆時期沒被扳倒?” 역시 나름의 근거로 건릉의 관용을 설명하고 있다.

42) 지금까지 내용을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盧經의 『從清朝檔案中看和坤』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그중 참고할 만한 작은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一年六次擢升飛黃騰達 ②何以深受乾隆寵幸 ③處理少數民族事務的得力助手 ④英人稱之爲“成熟的政治家” ⑤握有財權借機斂財自肥 ⑥誅殺和坤並非只因肅貪 ⑦爲何大喪之日誅和坤

43) 2001년엔 《월 스트리트 저널 아시아(The Wall Street Journal Asia)》에서는 그를 세계 최고의 부호 명단에 넣기도 하였다.

身.)⁴⁴⁾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스스로 묘사한 대로 “재주를 가지고 있었기(懷才)” 때문에 “자신을 망쳤다(誤此身)”는 이 구절은 확실히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고의 명신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버리고, 그 재주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을 스스로 연 것이다. 건륭 가경 시기 유명한 대신이었던 주규(朱珪)는 그를 비판하면서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슬 회하고 있다.

① 화신은 어렸을 때 학문을 좋아하였지만 그 후 점차 탐욕이 생겼고, 후에 권력을 손에 쥐고 조정에서 백관을 끼고 있었다. 스승과 제자의 마땅함을 저버리고 나를 불의에 빠뜨렸다.

② 화신은 이미 죽고 없으나 나는 그의 재주가 그를 옆길로 가게 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나는 본래 그와 함께 황제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화신이 나보다 먼저 떠났으니 나를 슬프고 탄식하게 한다.⁴⁵⁾

청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패와 자원과 재원의 고갈되는 전초를 보인 것이 건륭제 말기부터였다. 『만력(萬曆) 15년』에 이미 명나라의 멸망이 예고되었다면,⁴⁶⁾ 대청제국의 멸망은 가경 초에 이미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두고 가경제가 큰 후유증 없이 적절하게 마무리했다는 견해와⁴⁷⁾ 조정의 기강을 다 잡고 다시 성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비판이 모두 논리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화신 사후의 또 다른 논의로 들어가는 출발이므로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44) 원시는 다음과 같다. “夜色明如許，嗟令困不伸。百年原是夢，廿載枉勞神。室暗難挨曉，牆高不見春。星辰環冷月，縹緲泣孤臣。對景傷前事，懷才誤此身。餘生料無幾，空負九重仁。”李楠，『驚世巨貪和珅』의第十章 人生的變局的“5. 絕命詩”도 참고. 吉林大學出版社, 2010年2月1日.

45) ① 珅早年好學，唯其爲官後日漸貪婪，後手握權柄，挾百官於朝廷，不顧師生之誼，陷吾於不義。② 今珅已歿，吾惜其才致其入歧途。吾本欲與其一同爲皇上效力，惜珅先吾而去，令吾感歎。『清史稿·列傳127·朱珪傳』, 11092쪽에 주규의 능력을 시기한 화신과의 악연이 기록되어 있다.

46) 黃仁宇(레이황), 『1587 만력 15년, 아무 일도 없었던 해』, 새물결, 2004.

47) 조선 사신 曹錫中이 귀국하여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에 가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가경제의 화신에 대한 처리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 옮겨둔다. “和珅處置後，人皆謂皇帝有三達德。自卽位以來，知和氏之必欲謀害，凡於政令，惟和珅是聽，以示親信之意，俾不生疑懼，此智也。一日裁處，不動聲色，使朝署一新，奸究屏息，此勇也。不治黨羽，無所株連，使大小臣工洗心滌慮，俾各自安，皇妹之爲珅子婦者，另加撫恤，此仁也。” 자세한 내용은 吳晗,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第12책, 4989쪽을 참고.

IV. 맺는 말

화신(和珅)은 청 중기의 능력 있는 관료로서 행정과 정치, 심지어 예술 분야까지 천재적인 능력을 보였지만, 결국 역사상 최악의 탐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지금까지 그의 출생환경부터 벼슬에 오른 과정, 출세의 기회를 잡는 과정과 이후 부패사건 조사에서 보여주는 능력과 본격적인 부패의 시작과 그 방법, 그리고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건륭황제의 화신에 대한 관용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역사에서 가장 부패한 관리로 꼽히는 화신이 하급관료가 되고 나서, 황제의 신임을 받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유능한 관리로 성장하였다.

둘째, 화신의 부패는 특이한 경우인데, 그의 시대는 태평성대였으며 황제 또한 매우 빼어난 군주로 꼽히는 건륭황제였기 때문이다.

셋째, 화신은 이시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정축재를 시작하였는데, 청렴한 관리에서 부패한 관리로의 변화는 매우 빨랐다.

넷째, 화신은 직급이 높아지면서 일곱 가지의 방법을 써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는데, 황제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황제의 기분을 적시에 맞추어 더욱 신임을 받았다. 황제도 화신의 부정축재를 눈감아 주고 비호하였다.

다섯째, 건륭황제가 강남에 내려갈 때마다 매우 사치스러운 행차를 치르느라 큰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화신은 의죄은(議罪銀) 제도를 창안해 내고, 거기서 생기는 수입을 건륭제가 사적으로 쓸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건륭제가 죽고 나자 가경제는 즉시 그를 징치하고 자살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서 화신의 재산 규모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일곱째, 화신의 재산은 자료에 따라 2억에서 8억 냥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다. 가경 황제는 화신을 처단함으로써 정치적 이익과 함께 정치적 효과도 챙길 수 있었지만, 후자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화신의 부패 사건은 청대 중기 본격적으로 쇠락해가는 제국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건륭제에게 좋은 신하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신하임에는 틀림없었을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륭 후기의 조선 사신은 화신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내각대학사 화신이 정권을 장악한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위세와 복이 그에게서 나왔다. 탐욕과 혼탁함이 날로 심해지니 안으로는 공경들이 밖으로는 변왕과 후비들이 모두 그의 문에서 나왔다. 뇌물을 바치고 이부하는 자들은 높고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중립으로 그에게 기대지 않은 자들은 죄를 입어 처벌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위

로는 왕공부터 아래로는 화신을 따라다니는 자들까지 눈을 돌리고 욕을 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閣老和珅, 用事將二十年, 威福由己, 貪黷日甚, 內而公卿, 外而藩閫, 皆出其門. 納賄諂附者, 多得清要; 中立不倚者, 如非抵罪, 亦必潦倒. 上自王公, 下至跟珅, 莫不側目唾罵.)⁴⁸⁾

그래서 청대 역사 연구의 대가 蕭一山(1902-1978)의 다음과 같은 평가가 화신이 끼친 병폐를 가장 객관적으로 총평하는 결론으로 적절해 보인다.

“화신은 함부로 정치를 하며 안팎으로 사당이 많았다. 조정 선비 중 바른 태도를 가진 자들은 일을 단고 말하지 않았다. 황제의 은총이 더욱 두터워지고 세력 또한 막강해졌다. 그때 문신 중 기운(紀昀), 무신 중 해란찰(海蘭察)은 모두 功業이 빛나고 황제의 은혜를 입었지만 화신과의 불화로 크게 쓰이지 못하였다. 매번 문자옥(文字獄)에 참여할 때마다 죄인에 대해 특히 미워하고 각박하게 대했다. …… 여러 대신들과 과거답안을 읽을 때 화신이 특하면 전결하면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렸으니 그 기세를 상상할 수 있다. 가경 초년에 화신은 가경을 추대함에 공이 있음을 자부하여 그 방자함이 더욱 심해졌다. 바깥으로는 봉강대리(封疆大吏: 성의 총독이나 순무 등)가 되어 큰 군대와 집단을 지휘하였으며, 안으로는 인재선발을 장악하고 이재와 세금을 다스렸으며 소송을 결정하고 간언과 논의를 주재하였다. 과거시험과 크고 작은 신하들을 관장하였으니, 자신의 뜻에 따르면 즉시 영광되고 현달하였으며 조금이라도 빼어남이 드러나면 좌절이 뒤따랐다. 가경 2년에 아계(阿桂)가 죽자 화신은 더욱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었다. 화신의 횡포가 오래되자 관료의 기풍이 더욱 나빠졌으며 마침내 사천에서 백련교도의 난을 배태시켰다. 이것이 청 중기 쇠락의 최대 원인이다. 그는 다시 임의로 군대의 보고를 늦추고 압력을 가하여 여러 곳의 장수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공을 부풀려 상과 서훈을 받도록 하였으며, 자신도 공(公)의 작위를 얻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출을 계산하고 세목을 보고할 때, 큰 뇌물을 요구하여 장수들이 군대의 보급과 보급품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백련교도의 난이 이틈을 타서 만연하였으니 거의 수습할 수 없었다. 가경 초년에 이르러 강희·옹정·건륭 3대의 원기가 화신 한 사람의 손에 거의 다 꺾이고 망가졌다.⁴⁹⁾

48) 嚴友良, 『乾隆晚景另一面: 西方是怎樣對中國輕視和鄙夷的?』에서 인용. 《時代周報》, 2013.09.26.

49) 蕭一山, 『清代通史』, 783쪽 참고. 원문 인용은 생략. 中華書局, 1992, 北京.

참고문헌

- 『清史稿·列傳』, 中華書局, 1982, 北京.
- 蕭一山, 『清代通史』, 中華書局, 1992, 北京.
- 『乾隆起居注』,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2, 桂林.
- 국사편찬위원회, 『정조실록』 46권, sillok.history.go.kr.
- 薛福成, 南山 點校, 『庸庵筆記』, 江蘇古籍出版社, 南京.
- 徐珂, 『清稗類鈔』, 中華書局, 2010, 北京.
- 高王淩, 『乾隆晚景』, 中國地圖出版社, 2018, 北京.
- 關文發, 「關於和坤跌倒 嘉慶吃飽問題的質疑」, 『華南師範大學學報』, 1991년 제2기.
- 焦利, 「大貪官和坤反貪」, 『人民公僕』, 22期. 2014. 04.
- 焦利, 「和坤是怎樣從反貪走向巨貪的」, 『中國人大』, 2013.09.10.
- 樊斌, 「史上巨貪和坤爲何乾隆時期沒被扳倒?」, 『人民公僕』, 35期. 2015. 05.
- 盧經, 「從清朝檔案中看和坤」, 『武漢文史資料』, 2006.08.10. 武漢.
- 夢曉, 「貪婪蠹國成肥碩 一朝籍沒殺身禍——簡評清朝和坤貪汙案」, 『人民司法』, 1989.05.
- 張宏傑, 「和坤是死得最優雅的貪汙犯」, 『人物與歷史』, 2011. 02.
- 吳晗,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中華書局, 1980, 北京.
- 龍靜霖, 「乾隆下江南」(<https://baijiahao.baidu.com/s?id=170534637&wf=>)
- 余杰, 「乾隆爲何下江南」, 『領導文萃』, 2000.12.15.
- 李楠, 『驚世巨貪和坤』, 吉林大學出版社, 2010. 02. 01.
- 司伊平, 「乾隆皇帝爲何下江南」, 『人才資源開發』, 2017.09.
- 高王淩, 『乾隆晚景』, 經濟科學出版社, 2013, 北京.
- 瞿林東、葉小賓 주연, 『中國歷史·七年級』,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2016, 北京.
- WookYoon, 「Prosperity with the Help of “Villains,” 1776-1799: A Review of the Heshen Clique and Its Era」, 『T'OUNG PAO(通報)』, 2012.
- 車惠媛, 「18세기, 清朝 貪汙案 속의 題補制」, 『明清史研究』 第27輯. 2007.04. 서울.

투고일자 : 2022. 09. 10

수정일자 : 2022. 09. 24

게재일자 : 2022. 09. 30

<국문초록>

화신(和珅)과 건륭(乾隆)황제의 관계로 보는 청대의 부패양상

이강범 · 호미

청대 중기의 화신(和珅)은 능력 있는 관료로서 행정과 정치 능력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만, 30살 이후 본격적으로 탐관의 길을 걸어 결국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탐관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의 부패행위는 역대 중국왕조에서 일상적인 부패가 이루어지는 사회 정치적 환경과 매우 이질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가 살던 시기는 중국 역대 황제 중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건륭제 통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시요(李侍堯)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의 본격적인 부정축재가 시작되었으며, 청렴한 관리에서 부패한 관리로의 변화는 매우 빨랐다. 화신은 직급이 높아지면서 일곱 가지의 방법을 써서 재산도 불어났다. 그는 황제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황제의 기분을 적시에 맞추어 더욱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화신의 부정축재를 눈감아 주고 비호하였다. 그리고 건륭(乾隆)황제가 강남에 내려갈 때마다 매우 사치스러운 행차를 치르느라 큰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막심하였다. 그래서 화신은 황제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별도의 예산 마련을 위해 의죄은(議罪銀)이라는 변태적인 축재 방법을 창안하여, 거기서 생기는 수입을 건륭제가 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륭제가 죽고 나자 가경(嘉慶) 황제는 즉시 그를 자살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화신의 재산 규모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자료에 따라 2억에서 8억 냥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다.

가경제는 화신을 처단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신의 부패 사건은 청나라가 중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쇠락해가는 제국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확실히 자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재촉한 감이 없지 않다.

주제어: 화신(和珅), 건륭(乾隆)황제, 부패, 하강남(下江南), 의죄은(議罪銀), 가경(嘉慶)황제

